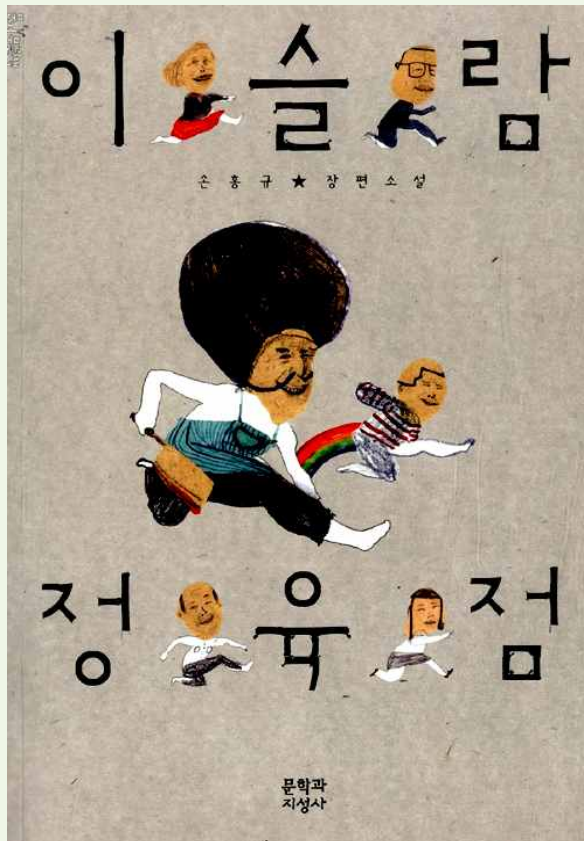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 1학년)

이슬람 정육점



손홍규 글 / 문학과지성사 / 240쪽

중학교 1학년 반 번

이름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즐겁게 책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독서에 대한 다음 명언을 따라 쓰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W. 워즈워스





독서 활동지 차례

	독서 활동 내용	페이지
독서 준비	책의 구성 살펴보기-요모조모 살펴요!	4
독서 중	낱말 뜻을 파악하며 읽기	6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7~8
	장면을 분석하며 읽기	9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10
독서 후	표현하기	12~13
	토론하기	14~15
	얼굴로 만든 세계 지도	16
	주인공 바꿔 쓰기	17
정리하기	책 평가하기, 독서 활동 점검하기	19
	책놀이 함께하기	20

독서 준비





독서 준비

▣ 책의 구성 살펴보기 - 요모조모 살펴요!

1. 책의 제목에 들어간 각각의 단어(‘이슬람’ ‘정육점’)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두 단어의 조합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적어보세요.

2. 앞표지에 그려진 인물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가장 흥미를 끄는 인물을 정한 다음 인물의 나이, 직업, 성격 등을 상상하여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3.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슬람 정육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한국에 눌러살게 된 터키인이 상처투성이의 한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 상처를 보듬어 안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상처와 욕망, 폭력과 광기의 트라우마를 집요하게 탐색한다. 서울의 이슬람 사원 주변, 허름한 골목에 모인 자살한 인생들과 부대끼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한 소년의 가슴 따뜻한 성장기. “그날 나는 이 세계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제 말 들으셨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구요.”

윗글에서 “그날 나는 이 세계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 말한 것인지 뒤표지의 글을 토대로 유추하여 적어보세요.

독서 중





독서 중

▣ 낱말의 뜻을 파악하며 읽기

※ 다음은 『이슬람 정육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가) 식당은 ㉠가풀막진 일차선 너비의 이면도로에 접해 있었다.
 (나) 그는 고양이에게 몰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생쥐처럼 검고 ㉡머르레한 눈동자를 굴렸다.
 (다) 슬금슬금 다가가 널브러진 그를 ㉢간동그려 이면도로를 따라 내려왔다.

1. 위의 문장 (가)~(다)에서 밑줄 친 낱말의 기본형과 그 뜻을 바르게 이어보세요.

㉠ 가풀막지다

•

•

① 하나도 흠어지지 않게 말끔히 잘 가다듬어 수습하다

㉡ 머르레하다

•

•

② 땅바닥이 가파르게 비탈져 있다, 눈앞이 아찔하며 어지럽다

㉢ 간동그리다

•

•

③ ‘멍하다’의 비표준어

2. ㉠~㉢의 낱말을 모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독서 중

▣ 내용을 파악하며 읽기

※ 『이슬람 정육점』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1~2)

(가) 구부정한 거인을 연상시키는 하산 아저씨의 뒷모습은 매번 이별하는 사람처럼 아득하고 쓸쓸했다. 불과 오십 걸음도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갈 때마다 하산 아저씨는 영혼을 놔둔 채 떠나는 사람처럼 굴었다. 하산 아저씨는 내가 만난 최초의, 또한 내가 알기로는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난도질하는 유일한 무슬림이었다.

(나) 나는 유정의 이 달콤한 거짓말을 믿어주기로 했다. 속아 넘어가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하산 아저씨도 그랬다. “라 알라하 일랄라후 무하마두르 라술루 라히(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며 무하마드는 예언자이다).” 왜 그런 거짓말에 속아주느냐고 물었을 때 하산 아저씨는 믿는 거라고 했다. 거짓도 믿으면 진실이 된다고 했다. ㉡나도 믿는다고 했다. 나를 낳아준 부모들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내 몸의 흉터들은 다 내 실수로 생긴 거라고.

(다) 이 세상에 비끄러매어두기 위해 꾸민 술책에 빠져 맹랑한 녀석은 지상에 머물러야 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였으므로 이 세계는 그에게 의붓세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의붓세계에 머물면서 한 일이라고는 집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노려보거나 고양이와 개를 꼬드겨 괴롭히는 것이었다. <중략> “고양이마저 나를 무시해. 이러니 내가 살고 싶겠어? ㉢죽기 위해서는 먼저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져야 하다니!”

1. ㉠~㉢은 역설법이 쓰인 문장들입니다.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입니다. 다음 중 역설법이 쓰인 문장을 모두 골라보세요.

- 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② 소리 없는 아우성
- ③ 찬란한 슬픔의 봄 ④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 ㉠~㉢의 역설 속에 숨겨진 화자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	㉡	㉢



독서 중

※ 『이슬람 정육점』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3~4)

(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유정이 맨 먼저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안나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정을 안았다. 유정은 병아리처럼 가만히 안긴 채 떨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 거라. 돌아오실 거야. 그럼, 돌아오시고말고. 이렇게 예쁜 아들을 놔둔 채 그 누구도 오랫동안 떠돌 수는 없는 법이다.” <중략> 나는 유정을 보고 알았다. 우리가 말을 더듬지 않는 이유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혹은 상처가 치유되어서도 아니라는 걸. 사실은 더 큰 상처로 고통받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유정은 어머니가 사라진 뒤 말을 더듬지 않았다.

(나) 방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맹랑한 녀석은 더 냉정해졌다. 그는 대머리 아저씨의 군복과 군화, 국방색 속옷과 양말까지 한데 모았다. 국방색 허리띠와 은빛 버클, 각 잡힌 전투모와 낡은 견장까지. <중략> 간단하게 목념을 한 뒤 신문지를 불쏘시개 삼아 ㉡대머리 아저씨의 물건들을 태웠다. 그것들은 마치 유품 같았고 우리는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가 된 것 같았다. 한 시대가 태워졌다. 한 사람의 과거가 타올랐다. 검고 악취 나는 연기를 피워 올리면서.

(다) ㉢야모스 아저씨는 빈 방에 갇혔던 새를 풀어줬다고 했다. “무서웠지. 손이 달달달 떨렸으니까. 하지만 그 새가 이제 막 날갯짓을 배운 새처럼 힘겹게, 하지만 결연하게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를 때는 가슴이 뿌듯했다.” 야모스 아저씨의 거짓말을 나는 이번에도 믿기로 했다. 그는 최후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한 병사처럼 안도했다.

3. ㉠~㉢의 행동에 담긴 인물들의 심경을 다음 표에 적어보세요.

㉠ 유정의 심경	㉡ 맹랑한 녀석의 심경	㉢ 야모스의 심경

4. (가)~(다)에는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결핍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화자인 ‘나’가 책 후반에서 자신과 하산을 위해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독서 중

▣ 장면을 분석하며 읽기

※ 『이슬람 정육점』의 핵심 장면입니다. 장면을 분석하며 물음에 답해보세요.

(가) 김 씨는 저녁에 먹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때문에 탈이 난 게 분명하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김 씨는 식구들을 총동원해 정육점으로 보냈다. “이거 돼지 콜레라 아닌가?” 구경하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씨가 기다리던 말이었다. “맞아, 맞아. 돼지 콜레라인 게 분명해. 이게 전염도 된다지?” <중략> 그들은 진열장에서 돼지고기를 꺼내 도마 뒤에 올려놓았다. 누군가 칼을 집어 돼지고기를 한 점 썰어내어 하산 아저씨 앞에 던졌다. 그들은 모두 기대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가난했다. 하산 아저씨는 당황했다. “콜레라 걸린 돼지가 아니라면 어디 한번 먹어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다들 옳은 말이라고 했다. 하산 아저씨는 대머리의 군가를 들을 때처럼 떨었다. <중략> 나는 저울 위에 누군가 토해낸 목젓처럼 분홍빛을 띤 돼지고기 살점을 올려놓았다. 저울 눈금이 움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울로 향했다. ㉠백 그램의 슬픔. 손바닥이 미끈거렸다. 나는 살점을 손으로 쥐고 입에 넣었다.

(나) “전쟁 때였다. 보급은 끊어지고 우리 중대는 고립되었다. 적군은 강했고 우리는 지쳤다. 배고픔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배 속이 텅 비어서 허깨비가 된 기분이었어. 포탄을 피할 곳도 없는 민둥산이었지. 그저 신의 가호로 포탄과 총탄이 나를 비껴가길 바랄 뿐이었다. 그때 내 옆에서 포탄이 터졌지. 내 몸이 붕 떠올랐다. 어디론가 내팽개쳐졌지. 포연이 걸히고 적들의 사격이 뜰해졌을 때 나는 내 입속에 무언가가 들어 있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씹었다. 달콤했어. 그게 포탄에 맞아 찢겨진 사람의 살점이라는 건 한참 뒤에야 알았다. ㉡전쟁이란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1. (가)의 ㉠과 (나)의 ㉡에서 화자가 느낀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 백 그램의 슬픔	㉡ 전쟁이란 사람이 사람을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2. (가)와 (나)에서는 ‘살점’과 관련된 사건이 ‘나’의 현재 시점과 하산의 과거 시점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가)와 (나)의 글을 참고하여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가)	(나)
‘살점’의 정체		
‘살점’에 대한 화자의 행동		
화자의 내적 변화		



독서 중

▣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1. 『이슬람 정육점』에서는 ‘흉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바로 흉터인데요. 상처는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통해 아물기도 하고, 방치되었지만 자연스레 아물기도 합니다. 하산은 ‘나’에게 흉터에는 개인의 역사가 깃들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흉터의 나이테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내 흉터의 나이테
1년 전	
2년 전	
3년 전	

2.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인물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상처를 지닌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 인물에게 추천하고 싶은 상처 치료법을 적어보세요.

가장 공감하는 상처를 지닌 인물	추천하고 싶은 상처 치료법

독서 후





독서 후

▣ 표현하기

※ 다음은 『이슬람 정육점』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나는 찬란한 비극을 상상 속에서만 목격했다. 내가 보았던 모든 영상들—전쟁영화, 드라마, 만화에서 건진 파편들로 짜 맞춘 조잡한 ㉠콜라주에서 그림자만이 유독 선명한 빛깔이었다. 나는 그림자가 어둡다거나 검다거나 잿빛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림자는 그것이 드리운 사물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 누런 흙바닥은 더욱 누렇게, 붉은 벽돌은 더욱 붉게, 푸른 물빛은 더욱 푸르게. 강렬한 햇살을 핑계 삼아 우리가 백안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본디의 빛깔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1. 윗글은 화자인 ‘나’의 서술입니다. ㉠콜라주(Collage)는 ‘풀로 붙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벽지·악보 등 인쇄물을 풀로 붙이는 것에서 유래된 기법입니다. 화자인 ‘나’가 상상한 비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본 영상들을 토대로 상상하여 찬란한 비극을 묘사해보세요.(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글로 묘사하여도 좋습니다.)



독서 후

2. 윗글의 ☹(그림자는 그것이 드리운 사물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은 역설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 정육점』에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전달하는 역설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을 찾아 다음 빈칸에 옮겨 적어보세요. 그리고 발췌한 역설적 표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세요.

역설적 표현	고쳐 쓴 표현
예시) : 그림자는 그것이 드리운 사물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	예시) : 빛은 그것을 비추는 사물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독서 후

▣ 토론하기

※ 다음은 『이슬람 정육점』의 본문 일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안나 아주머니는 전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대머리처럼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너무 어린 시절이 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얼마나 다행이나? 만약 내가 전쟁마저 기억했다면 진즉에 미쳐 버리고 말았을 거 야. 기억하지 않아도 좋을 일들이 너무 많거든. 거기다 전쟁이라니!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그런 이 야기를 들은 적은 있단다. 사촌 언니였지. 전쟁 전에는 아이를 쑥쑥 잘 낳던 언니였는데 전쟁 때는 통 아 이를 낳지 못했다더구나. 그러다 전쟁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아이가 섰다지. 내 생각이 옳다면 대머리 늘 은이는 말이다.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체하는 게 분명하단다. 전쟁이 끝났 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사촌 언니가 임신을 한 것처럼 기억도 되돌아오지 않겠니?”

1. 대머리 아저씨는 전쟁이 일어났던 날부터 휴전이 성립된 날까지 3년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참호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된 기록으로 보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기억상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 해 알고 있는 정보를 친구들과 나누어보세요.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모든 상황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장 소나 사람, 혹은 연상시키는 물건들과 접촉을 하면 크고 작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 키는 증상입니다. 대머리 아저씨의 경우에는 기억상실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맹랑 한 녀석’은 안나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대머리 아저씨가 잃어버린 3년간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유품을 태우듯 아저씨의 과거를 태워버립니다.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 라 할지라도 대머리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vs ‘대머리 아 저씨의 안정을 위해 기억상실을 유지해야 한다’ 두 개의 입장 중 한 가지를 골라 자 유롭게 토론해보세요.



독서 후

3. 2번에서 나눈 토론을 다음 표에 정리해보세요.

대머리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VS	대머리 아저씨의 기억상실을 유지해야 한다
------------------------------------	----	------------------------------

나의 의견은?

기억을 되찾아 극복해야 한다
친구들의 근거 :

기억상실을 유지해야 한다
친구들의 근거 :

4. 토론하기를 마친 후 '나'의 의견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독서 후

▣ 얼굴로 만든 세계 지도

※ 『이슬람 정육점』에서 ‘나’는 얼굴 스크랩북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이용하여 세계 지도를 만드는데요. 이 세계 지도는 ‘나’와 하산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아래의 글에서 묘사한 ‘나’의 스크랩북과 얼굴로 만든 세계 지도를 상상하여 다음 지도를 완성해보세요.

스크랩한 얼굴들 보며 나는 갈증을 느꼈다. 비슷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스크랩해야 할 얼굴들이 많다고 느꼈다. 어쩌면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표정이 하나의 표정으로 수렴된 얼굴을 만나기를 고대했는지도 모른다. <중략>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몽타주와 비슷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작업이었다.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했다. 아주 작은 차이만 있으면 된다.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조금 더 깊거나 얇거나, 광대뼈가 조금 더 돌출했거나 주저앉았거나, 피부가 조금 더 밝거나 어둡거나 <중략>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독서 후

▣ 주인공 바꿔 쓰기

※ 『이슬람 정육점』의 화자는 정육점 주인에게 입양된 ‘나’입니다. 『이슬람 정육점』에 등장하는 주변인물 중 한 명을 화자로 바꾸어보세요. 화자가 바뀔에 따라 갈등 상황과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요. 바뀐 설정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써보세요.

정리하기





정리하기

▣ 『이슬람 정육점』 책 평가하기

1) 이 책에 별점은 몇 점을 줄 것인지 점수만큼 색칠해보세요. (10개가 만점)



2)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점에서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써보세요.

▣ 『이슬람 정육점』의 독서 활동 점검하기

1) 자신의 독서 활동을 돌아보며 잘한 만큼 색칠해보세요. (5개가 만점)

· 책을 읽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샅폈나요?



· 책을 즐겁게 능동적으로 읽었나요?



· 읽기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나요?



2) 이 책의 독서 활동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정리하기

■ 『이슬람 정육점』 책놀이 함께하기

※ ‘진짜 가짜 문장 쓰기’ 놀이를 하며 독서 활동을 마무리해봅시다.

<놀이 방법>

책을 읽고, 네 문장을 씁니다. 네 문장 가운데 두 문장은 진짜고, 두 문장은 가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만나는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사람이 한 문장을 읽습니다. 진 사람은 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춥니다. 진 사람이 맞추면 1점을 얻고, 만약 틀리면 이긴 사람이 1점을 얻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놀이를 한 후, 점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 진짜 가짜 문장 쓰기

진짜	
진짜	
가짜	
가짜	

입시와 경쟁의 단단한 교육 현실 속에서 미래 교육의 싹을
틔워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응원하는 작가들의 메시지

*

“선생님들이 한 권 읽기를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은 혼란과 의문으로
머리가 벌벌 끊게끔 만들어야
세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 김 훈

*

“정답을 가르쳐 왔던 학교가,
책을 통해 정답 외에 다른 답들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즐거운 경험이자 시도이며,
이를 통해 교육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 은희경

*

“여러분 각자가 항상 배낭에
책 한 권을 넣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 Gabriel Garcia Marquez



문학과지성사